

# 부부 갈등과 용서: 자기심리학과 기독교 상담적 관점

김 준\*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부부 갈등 해결의 중요한 과정인 용서의 핵심 요소로 공감을 자기심리학과 기독교상담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자기심리학의 핵심 개념들이 공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고찰한 후 이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족 갈등에서 용서의 필요성과 용서 과정에서 공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공감을 상담의 핵심으로 여기는 자기심리학의 공감의 개념과 연관된 자기대상의 필요, 자기에적 상처의 개념을 통해 부부 갈등에서 표출되는 분노의 감정을 설명하고, 상호 공감을 통해 상대방을 더 깊게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과 부부 상호간 용서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자기심리학이 제시하는 공감의 관점은 갈등 가운데 있는 상대 배우자를 향한 상처의 이해와 공허함을 향상시키고 부부 상호간의 용서 동기를 강화하는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독교상담 관점에서 고찰할 때 용서의 동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한 부부간의 용서를 실천해야 하며, 자기대상 욕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경계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심리학의 개념을 사용한 심리 현상의 기술이 질적 연구 방법론과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부부 갈등 사례에서 나타난 심리적 역동과 영적인 관점을 현상학이나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질적 연구의 방향을 제안한다.

**주제어 :** 부부갈등, 용서, 자기심리학, 공감, 자기대상

• 논문 투고일: 2017년 3월 26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5월 8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13일

\*충신대학교

## I. 여는 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만 결혼관계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건강한 결혼이란 Salvador Minuchin이 말했듯이, 부부사이의 차이와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sup>1)</sup> 그러나 많은 부부가 서로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 때문에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구성원들이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이혼과 같은 파국을 맞기도 한다.

가족 관계의 핵심인 결혼이 문제가 있을 때 가족 전체구성원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대부분의 가족상담의 주요 이론들은 부부갈등의 이해와 접근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부부갈등의 해결 방법은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자신의 결혼이나 상대배우자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와 생각들을 수정하고, 이를 대화나 합의된 규칙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김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고와 행동의 수정에 기초한 방식들은 부부간의 친밀감과 감정에 대한 강조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한계점을 보완한 부부간의 정서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이마고 치료나 정서중심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깊을 때는 위와 같은 치료적 개입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상담이 정체될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주로 그들의 깊은 상처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과 연관 있는 '용서'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기독교상담의 대표적인 가족치료이론가인 Everett Worthing이나 Mark Yarhouse같은 학자들은 용서의 문제를 갈등해결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가해자를 향한 공감의 자세가 필

---

1) Salvador Minuchin,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56.

요함을 지적하고 용서의 증진을 위한 공감의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러나 공감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만 논의할 뿐 구체적인 공감의 개념과 용서를 어렵게 하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과 공감의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부부갈등의 해결의 중요한 절차로 여겨지는 ‘용서’의 핵심 요소인 ‘공감’을 자기심리학과 기독교 상담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공감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공헌한 자기심리학의 ‘자기대상, 수치심, 자기애적 상처’ 등의 개념을 기술한 후, 용서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기독교 상담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평가한 후 기독교상담에 주는 함축성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부부갈등의 유형들이나 심리들을 기술하고 분석한 다양한 질적 사례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II. 펴는 글

### 1. 부부갈등 해결에서 용서와 공감

#### 1) 부부갈등 해결에서 용서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부부 상담과 중독 상담은 좋은 결과를 내기 가장 어려운 상담으로 여겨져 왔다.<sup>2)</sup> 기독교심리학자 Worthington은 “상담사들은 그들 내담자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갈등 속의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쉽게 절망에 빠진다”고 말하며 심한 갈등관계에 있는 부부상담은 상담사들이 피하고 싶은 분야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sup>3)</sup> 리전트대학교의 James Sells

2) Xenia Rochelle Jones, “Mental Health: Does Therapy Help?,” *Consumer Reports*: 1995 (November, 1995): 734-740.

3) Everett L. Worthington, Jr., *Hope-Focused Marriage Counseling: A Guide to Brief Therap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5), 20.

와 Mark Yarhouse는 부부상담이 어려운 이유는 가사분담이나 양육과 같은 일상적인 가정의 일에 관련된 갈등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아픔이 쌓여서 만들어낸 오래된 감정의 앙금 그리고 원가족의 영향에서 오는 무의식적인 감정적인 대응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4)</sup>

부부갈등은 의견충돌이나 대화의 문제뿐만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와 실망감 등의 내면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상담과정에서 종종 일어나는 부부간의 다툼이나 저항 등으로 더 이상 상담의 진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Walrond-Skinner는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의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가 이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개인과 관계 속의 치유를 허락하는 과정으로서 ‘용서’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용서에 대해, 그 과정 자체가 회복적이고 유익한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결혼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새롭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다.<sup>5)</sup> Terry Hargrave는 갈등관계 속에 있는 부부가 겪고 있는 감정의 핵심을 신뢰의 손상에서 오는 수치심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가족 안에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가족관계에서 소중한 신뢰가 깨어지고, 무책임한 행동과 말로 인한 상처로 마음 속 깊이 수치심을 느끼고 이에 압도당하기 때문이다. 이 수치심은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라고 말한다.<sup>6)</sup> 그러므로 Hargrave에게 있어서 용서는 일종의

---

4) Mark A. Yarhouse & James N. Sells, *Family Therapies: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8), 29-44.

5) Skinner S Walrond, “The Function and Role of Forgiveness in Working with Couples and Families: Clearing the Ground,”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1998): 3-19.

6) Terry D. Hargrave, *Families and Forgiveness: Healing Wounds in the Intergenerational Family*, 문미선 역, 『가족치료와 용서: 세대와 가족 간에 얽힌 상처의 치유』 (하나의 학사, 2004), 35.

정서 과정으로서, 부정적인 감정이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경험되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안전함으로의 회복이라고 보았다.

기독교상담학자들은 특히 부부갈등에서 용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Worthington은 그의 저서 *Hope-Focused Marriage Counseling*에서 ‘고백과 용서’의 과정이 부부갈등 해결의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부부는 먼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결혼의 가치를 신앙 안에서 함께 공유함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행동이나 습관을 수정하고 건강한 대화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Worthington은 “용서는 갈등에서 화해로 가는 중요한 통로로서 상처에 대한 고찰, 공감과 겸손 그리고 감사함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라고 주장한다.<sup>7)</sup>

Sell과 Yarhouse는 Worthington보다 용서를 더욱 강조하여 부부갈등 회복의 목표와 과정을 용서로 보았고, 이것이 가장 기독교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갈등해결이 용서로서 종결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갈등하는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호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방어적 반응의 반복은 서서히 두 사람의 신뢰관계에 손상을 주고, 이것이 관계의 골을 깊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Sell과 Yarhouse에 따르면, 용서는 관계 속에 은혜가 생성되고 용서와 은혜의 반복으로 기존의 고통과 방어가 반복적인 형태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다.<sup>8)</sup>

## 2) 용서에서 공감의 중요성

원래 기독교의 핵심가르침 중의 하나인 ‘용서’는 학문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의 중요한주제가 되었다. 특히 심리학분야에서 용서의 유익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는데,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7) Worthington, *Hope-Focused Marriage Counseling*, 128-146.

8) Sell & Yarhouse, *Family Therapies*, 170.

의 Robert Enright이다. 그는 용서를 상처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한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가질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으로 보고, 용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과정모델(Process Model)’을 제시한다. 과정모델은 ‘발견(uncovering)’, ‘결단(decision)’, ‘실천(work)’ 그리고 ‘심화(deepening)’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피해자는 먼저 그가 과거에 받은 상처를 발견하며 그 상처의 성격과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삶을 위해 용서를 결단한다. Enright의 용서모델의 핵심은 3단계인 ‘용서의 실천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용서를 실천하는 동기를 갖기 위한 핵심적인 자세는 ‘공감(empathy)’을 강조한다. 공감은 상처를 주었던 사건과 그 상황을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며 가해자의 입장에서 재조명(reframing)하는 노력이다. 즉, “성장하는 동안 가해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가해할 당시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 사람과 당신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세계적인 관점에서 인간성을 평가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 가면서 가해자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노력이다.<sup>9)</sup> 가해자가 어떤 동기로 상처를 주었는지 또는 혹시 어떤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를 고려하며 이유를 탐색하는 가해자를 향한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심리학자로서 용서의 권위자인 Everett Worthington은 위의 Enright의 과정모델을 수정한 ‘피라미드 모델’이라는 용서의 방법을 소개한다. 이 모델은 다섯 단계의 용서 모델로 ‘상처의 회상(Recall the Hurt)’, ‘가해자와의 공감(Emphasize with the One who hurt you)’, ‘이타적인 선물(Altruistic Gift)’, ‘용서의 실행(Commitment to Forgive)’, ‘용서의 지속

9) Robert Enright, *Forgiveness Is a Choice: A Step-By-Step Process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채규만 역, 『용서치유』(서울: 학지사, 2004), 172-173.

(Holding onto Forgiveness)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각 단계의 영문 이니셜을 따라 'REACH' 라고도 불린다.<sup>10)</sup> 그는 이 다섯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가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것'을 용서의 동기를 제시하는 중요한 단계로 보았다. 또한 그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두려움의 상태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이것이 용서를 막는 장애물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Worthington은 이렇게 공감의 이해를 강조하며 그 목적에 따라 '이해를 위한 공감(empathic accuracy),' 동일화 공감(empathic identification), 공휼의 공감(empathic compassion)으로 구분했다. '이해의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고 '동기화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정신 상태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의 '공휼의 공감'은 다른 사람을 향한 공휼과 돌봄의 자세와 함께 앞의 두 가지의 공감을 포함하는 것이다. Worthington은 용서에서 필요한 것은 세 번째인 공휼의 공감으로서, 이러한 공감의 실천은 다른 사람과의 좋고 즐거운 경험과 이야기들 그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쓰는 편지, 가해자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 등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sup>11)</sup>

그러나 위의 저자들은 공감의 중요성과 공감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기술할 뿐, 관계의 상처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인 '분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Enright가 일반적인 관계와 관련된 용서에서 분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만 주로 분노와 수치심의 경험과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다.<sup>12)</sup> 무엇보다 가정폭력이나 중독 등의 심각한 학대 외에 대부분의 부부갈등이 상호간에 주고받는 상처에

10) Everett L. Worthington, Jr.,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 Theological Perspectives*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1998), 107-137.

11) Everett L. Worthington, Jr., *Forgiving and Reconciling*, 윤종석 역, 『용서와 화해: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이어 주는 9계단』 (서울: IVP, 2006), 118.

12) Enright, 『용서치유』, 117-154.

서 비롯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부관계의 독특한 역동 속에서 이해되는 갈등 관계에 나타난 감정들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부부갈등해결을 위한 용서를 촉진하는 공감은 더욱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심리학’은 공감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통해 부부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감정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준다. 특히 자기심리학은 부부가 상대방의 감정을 그들의 경험에 기초한 상호적인 관점을 통해 부부관계의 역동의 맥락에서 용서와 공감의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 2. 자기심리학의 관점의 공감과 용서에의 함축성

### 1) 자기심리학의 공감과 자기대상

#### (1) 건강한 정신의 핵심으로서 공감

공감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자기심리학 만큼 공감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이론은 드물다. 자기심리학을 제안한 Heinz Kohut은 건강한 ‘자기’의 개념을 통해 그의 이론을 전개해간다. 그에 의하면 자기는 ‘심리세계의 중심(the center of the psychological universe)’으로서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인간본성이다.<sup>13)</sup> Kohut은 건강한 자기를 ‘응집력 있는 자기(cohesive self)’라고 표현했는데, 이 건강한 자기의 형성은 부모와 같은 자기대상(selfobject)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공감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공감은 자기의 심리적 산소로서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Kohut의 공감의 이해에서 독특한 면은 공감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 대부분의 이론가들과는 달리, 상대방과

---

13) Heinz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Madison, NJ.: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xv.

의 '공감적 관계(empathic relationship)'를 강조했다. 이 공감적 관계는 독특한 심리적 현상을 말하는데, 상대방과 심리적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자신의 일부로서 느끼는 것과 같은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이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공감해줄 때, 아이가 엄마를 자신과 연결되어있듯이 느끼면서 엄마의 공감을 내면화하여 아이의 자기가 자신 있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Kohut은 아이의 자기가 건강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향한 엄마의 공감적 자세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엄마의 공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이 Kohut이 말하는 '공감의 관계함(empathy as relating)'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그러므로 엄마의 공감적 행위와 같은 객관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감의 대상이 경험하는 주관적 경험(subjective experience)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공감과 자기대상의 필요(selfobject needs)

자기대상은 공감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대상을 말한다. 유아에게 어머니가 거울반응, 안아줄과 같은 행위를 통해 공감을 제공해줄 때 어머니는 유아의 자기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상담사가 내담자의 입장에서 공감적으로 들어주고 지지해줄 때, 내담자에게 자기대상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대상으로서의 어머니나 상담사가 아니라 어머니와 상담사가 수행하는 자기대상의 기능(function)이다. 어머니나 상담사가 수행하는 자기대상의 기능을 내담자나 유아가 내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내담자나 유아의 심리적 자양분이 되어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게 한다.

Kohut은 자기대상의 기능을 거울 자기대상, 이인상화 자기대상, 쌍둥이 자기대상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한다.<sup>15)</sup> 어린아이는 소리 내는 것, 걷

14) Chris. R. Schlauch, "Empathy as the Essence of Pastoral Psychotherapy," *Journal of Pastoral Care* 44 (1990): 5.

15) 홍이화,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I』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59.

기, 표정 등 자신이 이룬 작은 것들에 대해 지지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엄마와 같은 보호자가 아이의 표정을 거울과 같이 흉내 내어주고 칭찬과 격려의 표정과 행동으로 반응해주는 것을 '거울자기대상 기능'이라고 했다. 거울 자기대상을 통해 아이는 자신이 여기는 자신의 완전함과 과대성을 증대시켜 내면에 건강한 자존감과 포부를 갖게 된다. '이상화 자기대상(idealized selfobject)'이란 아이가 강하고 전능하다고 여기며 이상화하는 부모가 공감적으로 지지해줄 때 이상화된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스스로 완전하고 든든하다고 느끼며 건강한 이상을 추구하는 자기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Kohut은 부모가 함께 있어주고 지지해 줄 때 자녀들은 부모의 일하는 모습 등을 흉내를 내거나 닮고 싶어 하며, 자신이 부모와 닮았다는 것을 느낄 때 '쌍둥이 자기대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내면적 기능은 내면의 심리적 기능들이나 재능들을 조절하거나 강화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up>16)</sup>

Kohut에 의하면, 건강한 자기는 정서적인 유연성과 생명력을 제공하고 긍정적 존중감과 가치감을 지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sup>17)</sup> 반면 자기대상을 통한 공감적 지지가 심각하게 결여된 경우 응집된 자기가 아닌 파편화된 자기(fragmented self)가 되어 자기구조에 결함을 초래하게 되고, 내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이나 존재감이 결여되어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과도한 자기 내면의 몰두, 긴장을 조절하는 능력의 결여, 분노와 쾌락에 대한 과도한 탐닉 등은 자기결핍에서 오는 증상들의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3) 자기애적 상처(Narcissistic injury)로 인한 수치심과 분노

Kohut은 건강한 자기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유아기뿐만 아니라 결혼

16) Heinz Kohut,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194-207.

17) 홍이화,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I』, 70-75.

관계를 포함한 전 생애에서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 공감적 기능을 하는 자기대상을 통해 그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에적 손상으로 인해 정서적·행동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자기대상으로부터 공감적 지지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기 구조에 자기에적 상처가 생기고, 이는 자기의 구조에 결함으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자기에적 상처는 자신의 존재감, 자긍심, 가치에 대한 깊은 부정적 인식을 가져오며, 작은 비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깊은 수치심과 분노로 이어진다. 코헛은 이것을 '자기에적 분노(narcissistic rage)'로서 수치심에 취약한 사람이 비판을 자신의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방어적 반응으로서 그 특징은 '용서를 할 수 없는 격노 (unforgiving fury)'라고 보았다.<sup>18)</sup>

구체적으로 Kohut은 앞의 자기대상의 세 가지 기능에 따라서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자기대상을 갈급해하지만 결국에는 충족되지 못하고 깊은 수치심과 분노를 쉽게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 즉, 자기에적 상처로 인해 자기구조에 결함이 생기면 자신을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거울 반응의 자기대상이 자신을 채워주기를 갈망하게 되거나 능력, 지성 미모, 도덕성에서 자신의 이상을 충족시켜줄 자기대상이나 자신과 비슷한 의견 또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으로 경험되는 대상을 간절히 찾게 된다. 그러나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수치스러운 거절감으로 경험하게 된다.<sup>19)</sup>

자기에적 상처가 깊어 인간관계에서 방어적인 사람은 타인을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심리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sup>20)</sup> 이들에게 있

18) Heinz Kohut, "Thoughts on Narcissism and Narcissitic Rag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7 (1972): 386-387.

19) Kohut, "Thoughts on Narcissism and Narcissitic Rage," 379-381.

20) Steven J. Sandage, "Forgiveness and Intersubjective Formation," in *The Faces of Forgiveness: Searching for Wholeness and Salvation*, eds. Shults, F. Leron & Steven J. Sandag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3), 55, 57.

어서 용서는 이해나 교육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깊은 공감적 관계를 통한 자기의 치료에 의해서 가능하다. David Augsburger는 자기애적 분노가 극심한 이들이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이들의 방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공감적 관계를 통해 상담사가 내담자의 세계로 들어가 자기를 치료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sup>21)</sup>

## 2) 자기심리학의 관점으로 본 결혼 관계와 갈등 이해

### (1) 자기대상관계로서의 결혼

다른 정신분석전통과는 달리, Kohut은 유아기 때의 경험이 건강한 자기를 결정짓는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성인이 성숙하게 선택한 자기대상에 의해 자기를 유지하는 효과를 경험하면 인생의 이전 발단단계에서 경험된 자기대상의 경험들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튀어나온다”고 지적하며, 건강한 자기의 형성과 유지는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고 자기는 자기대상과의 공감적 경험을 통해 유지와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sup>22)</sup> Kohut에 의하면, 부부관계에서 ‘자기’의 문제가 있는 배우자들이 만나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고, 건강한 ‘자기’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혼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공감적 관계가 필요하다.

가족은 서로 반응하면서 자기대상의 경험을 제공해주고 받는 서로 연결된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자기대상 경험뿐만 아니라 긴밀한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은 주요한 자기대상 경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Leone은 다음과 같이 자녀양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기대상의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 있고 성공적인 부모로서의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즉, 자녀들을 통해 부모는 ‘거울 자기대상(mirroring selfobject)’을

---

21) David Augsburger, *Helping People Forgiv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85.

22) Kohut, “How Does Analysis Cure?,” 49–50.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자녀들을 보면서 자신과 비슷하거나 닮았다는 느낌을 마음 깊이 느낄 때 부모는 쌍둥이 자기대상(twinship selfobject) 경험을 한다. 또는 자녀들을 이상화하면서 위로와 평안함을 느끼곤 하는데, 이것은 ‘이상화 자기대상(idealizing selfobject)’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형제들과 친척들 간의 관계에서도 인정, 이상화나 유사함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건강한 결혼관계에서 배우자들은 서로의 감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 격려와 지지 등의 자기대상의 기능을 제공해줌으로써 상대방의 일시적으로 약해진 자기 존재감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우자는 서로 자기대상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대상의 기능이 필요할 때 상호적으로 제공해준다. 자기대상 관계를 통한 유익은 배우자 각자의 자기가 더욱 성숙해지므로 의사결정이나 타협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로의 차이점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타협과 조정이 보다 원활하여지고 결과적으로 배우자 사이의 신뢰와 긍정적 감정이 향상된다.

#### (2) 자기심리학을 통한 결혼 관계의 상처와 갈등 이해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갈등속의 부부들은 대부분 과거의 상처를 준 사건이나 언어 또는 행동을 놓고 갈등하고 싸우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심리학은 부부갈등이 외부적인 언행이나 의견의 차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결혼관계에서 자기대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의 결과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 Leone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3) Carla M. Leone, "Toward a More Optimal Selfobject Milieu: Family Psychotherapy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Psychology,"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9, no. 3 (2001): 271.

예를 들면, 부부가 돈에 대하여 갈등하는 것은 종종 아내가 저축이 제공해주는 안전함과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 자기대상의 필요와 아내의 구매 행위에서 오는 인정, 자극, 위로를 받고 싶은 남편의 필요가 상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친척들과의 갈등은 인정과 지지에 대한 서로의 필요가 충돌하는 결과일 수 있다. 즉, 한 사람은 자신의 원가족들이 호의적이고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반면 상대 배우자는 결혼생활에서 자신이 중심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원한다. 이와 같은 부부들의 혼란 갈등들은 밑에 깔려있는 자기대상욕구와 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패로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sup>24)</sup>

자기 심리학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갈등에서 반응하는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뿐, 본질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것은 결혼관계에서 본인의 존재감과 중요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깊은 욕구이다.

어렸을 때에 충족되지 못한 자기대상의 필요는 결혼과 같은 어른시절의 인간관계에서 배우자가 공감을 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상처를 받아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에 쉽게 취약해질 수 있다. 건강한 자기는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공감[적 반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자기의 자기에 문제가 있게 되면 상대방의 반응과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발하게 된다. 갈등관계의 부부는 주로 자기애적 손상이 깊으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이 약하다. 이들은 다시 자기애적 상처를 입게 되어 더욱 자신의 결핍을 가져오고 싸움은 지속되고 관계는 더욱 소원해진다. 그럴수록 자기는 손상되고 상대적으로 자기대상의 필요는 더욱 강해진다. 이들은 상대방의 작은 실수에도 큰 실망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의 홍수에 쉽게 휩쓸린다.

가족치료사 David Shaddock은 이러한 결혼생활에서 발견되는 자기

---

24) Carla M. Leone, "Couple Therapy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Psychology and Intersubjectivity Theory," *Psychoanalytic Psychology* 25, no. 1 (2008): 81.

애적 손상의 기원은 주로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보았다.<sup>25)</sup>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자기애적 상처는 아이에게 내면화되어 독특한 가족관계와 성장배경에 따라 내면에 발전되고 결혼관계에서 내담자와의 갈등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부부갈등관계에서는 자기대상의 기능을 서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자기의 자기대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한다. 그러나 상대방도 이러한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기대된 자기대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대상적 기능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 자기대상적 필요가 채워지기를 더욱 갈급해하며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과도하게 이상화하여 상대방의 통제를 받고자 한다. 이것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반복되는 실망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패감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일의 성취에의 과도한 집착은 종종 자라오면서 충족되지 못한 자기대상의 필요가 왜곡된 영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의 성취에 대한 아내의 인정을 간절히 바라지만 오히려 비난받을 때 자기의 노력에 대한 방어적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과도한 회피나 분노로 나타난다. 이는 남편의 과거의 자기애적 상처가 다시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의 가정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아내의 비판에 그는 자신의 노력이 실패하고 있음을 느끼고 동시에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 아내가 감정의 교류가 적은 가정에서 자란 경우에는 남편이 일에 대한 집착하는 것을 곧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으로 연결시키고 자신은 남편의 성공과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소모품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주변의 소사들을 통해 남편을 자극함으로써 그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지만 회피와 짜증만 돌아

---

25) David Shaddock, *From Impasse to Intimacy* (Northvale, NJ.: Jason Arson Press, 1998), 27-48.

을 때, 아내는 과거의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해서 받은 자기애적 상처가 발현되어 분노와 공격적인 말로 반응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은 갈등의 자기심리학적 분석은 상대방의 내면의 깊은 필요를 알게 한다. 즉 배우자의 자신에 대한 공격과 분노, 냉소적 반응은 내면의 충족되지 못한 자기대상의 필요에 기인하며 이는 오히려 도움을 바라는 무의식적인 외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상대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이유도 상대방의 언어나 행동들을 방어적으로 해석한 결과임을 깨닫게 된다. 가족치료적 관점에서 Leone은 이러한 깨달음에 기초한 배우자 사이의 공감적 관계가 서로의 자기대상적 기능을 실천하는 치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sup>26)</sup>

### 3) 자기심리학을 통한 공감 능력의 강화

Enright는 용서를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가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용서의 시작은 피해자 본인이 받은 상처의 이해에서 시작하고, 용서의 구체적인 실천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 용서를 촉진시키는 동기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sup>27)</sup> 이에 대하여 자기심리학은 갈등 속의 부부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본인도 가해자임을 더 설득력 있게 지적해줌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첫째, 자기심리학은 부부갈등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겪게 되는 상처와 용서가 한 사람에게 적용되기 보다는 부부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상호적임을 깨닫게 해준다. 부부관계와 같이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대부분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

26) Leone, "Couple Therapy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Psychology and Intersubjectivity Theory," 85.

27) Enright, 『용서치유』, 39.

서로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갈등 속에서 부부는 자신을 피해자로 보고 상대방을 가해자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처가 상호적이라는 통찰은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목회상담학자 John Patton은 자신이 겪은 비극에서 오는 상처를 기술하며 기독교 용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용서에 관한 위대한 발견은 피해자인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한다.<sup>28)</sup> 이것은 기독교적 관점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즉, 부부가 죄인된 인간으로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의롭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내면에 공격성과 죄성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것이다. 즉 일방적으로 상처받았다는 생각보다는 나도 배우자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며 힘들게 했다는 깨달음을 통해 이러한 공감적 자세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둘째, ‘자기대상적 필요’와 ‘자기애적 상처’와 같은 개념들을 통해 사람이란 나약하고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의지적인 존재임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공흥의 관점에서 보게 한다. Enright는 공감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가해자를 분노와 복수심등 부정적 감정에서 공흥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관점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sup>29)</sup> 즉, 자기심리학은 배우자의 원가죽을 이해하고 자라온 환경을 보면서 배우자가 자기대상적 필요가 간절했음을 인지하며 상대방을 공흥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 이를 통해 부부는 상대방의 상처가 되는 행동이나 말이 자신을 미워하거나 악한 동기에서 나왔다고보다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달라는 외침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자기 심리학의 관점을 통해서 부

28) John Patton, *Is Human Forgiveness Possible?: A Pastoral Care Perspectiv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5).

29) Robert Enright & Catherine Coyle, “Researching the Process Model of Forgiveness within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 Theological Perspectives*, ed. Everett Worthington, Jr.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1998), 145.

부는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고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배우자의 말이나 사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염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 3. 용서와 관련된 자기심리학 개념들의 기독교상담적 관점

#### 1) 용서에 관한 성경적 관점의 필요성

Worthington은 용서를 ‘결단의 용서(decisional forgiveness)’와 ‘정서적 용서(emotional forgiveness)’ 2가지 유형으로 구별한다.<sup>30)</sup> 결단의 용서는 가해자를 향해 부정적인 행위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려는 의지를 말하는 반면 정서적 용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휼이나 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결혼 관계에서의 용서가 궁극적으로 상처에서의 치유를 넘어 관계의 화해까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유형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자기심리학적 개념들은 앞에서 기술한대로, 부부갈등속의 상처와 분노의 이해의 확장을 통해 용서의 동기를 강화해주는 것은 ‘정서적 용서’의 유형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대상의 필요와 욕구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와 상충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부부갈등 가운데 표현되는 상대방을 향한 분노나 무시하는 언행들은 자기대상에 대한 간절한 욕구의 표현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즉 기독교상담자는 자기심리학이 조명한 부분을 통해 기독교 상담의 입장에서 갈등과 부정적 정서의 표출의 원인과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에서 기독교상담자는 분노의 정서를 이해할

30) Worthington, 『용서와 화해』, 50.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을 다루거나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기심리학의 부부갈등의 이해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은 자기대상의 필요가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결정론적인 관점이다. 자기심리학은 하나의 이론으로서 인간의 심리를 관계의 심리적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 것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유익한 통찰을 제공해주는 유익이 있지만 복잡한 인간관계와 심리를 자기심리학적 기준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1.2) 부부사이의 용서도 성경적 원리를 따를 필요가 있다.

개혁주의 신학자 Anthony Hoekema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동료인간 그리고 피조물의 3중 관계 속에서 지음을 받았으며, 모든 관계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한다.<sup>31)</sup> 그러므로 부부 갈등에서 상처의 이해와 용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인간관계의 용서에 대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용서를 모델로 삼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마 6, 18장; 골 3).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음의 체험과 사람 사이의 용서하는 능력의 발견사이에 견고한 연관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32)</sup>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골 3:13). 예수의 용서의 비유를 담은 마태복음 18장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라고 결론내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31) Anthony Hoekema, *Created In the Image of God*,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23-60.

32) 안경승, “결혼에서의 용서”,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0권(2008): 47.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심리학이 조명해주는 상대방을 향한 깊은 공감과 긍휼을 통하여 용서의 의지가 동기화되기도 하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용서란 선택이라기보다는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할 성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성경이 용서를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유대인 학자인 Doff도 용서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백성의 의무라고 주장한다.<sup>33)</sup> 갈등속의 많은 부부들이 깊은 상처 때문에 용서를 유보하거나 화해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강제적 성격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서 결혼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강한 뜻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자는 갈등 속에 있는 부부는 자기심리학적 이해를 통해 본인과 상대방의 아픔과 분노를 공감하면서 서로의 반응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 용서의 필요성을 깨닫는 데서 더 나아가 기독교인으로서 용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용서는 사람의 힘만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들의 진정한 용서의 동기가 되고 진정한 의미가 된다면 용서의 실천을 통해 갈등속의 부부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sup>34)</sup>

## 2) 자기대상의 욕구와 결혼의 이상

자기심리학은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관계가 되어야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배우자로부터

33) Elliot N. Doff, "The Element of Forgiveness: A Jewish Approach," in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 Theological Perspectives*, ed. Everett Worthington, Jr.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1998), 29-58.

34) 김준,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결혼/부부 상담의 용서 문제",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0권(2008): 164.

터 지지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 배우자로 부터의 지지와 인정을 받기 위해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이것이 결혼관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결혼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

Winston Smith는 성경적 결혼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결혼관계에서 배우자들이 추구하는 인정 욕구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만으로는 나쁜 것이 아님을 눈여겨보라. 배우자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편안함을 즐기고 삶이 통제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마음의 우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너무 집착할 때 즉 하나님과 우리 배우자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방해할 때 이것들은 나쁜 것들이 된다.<sup>35)</sup>

기독교인들의 결혼은 부부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관계이다. 성경은 결혼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결정들과 부부간의 상호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은 결혼생활을 통해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권면하고 있다(엡 6).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심리학의 개념들이 왜곡되게 해석되어 부부가 자기대상의 필요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으로 부터의 인정과 지지를 결혼관계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을 때 Winston Smith가 지적한대로, 이것

35) Winston Smith, *Marriage Matters*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10), 30.

들이 배우자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대체하게 된다. 이러한 위상은 결국 부부를 갈등 가운데로 인도한다. 즉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를 받는 것이 위상이 되는 경우, 이것을 얻지 못했을 때 민감해지며 쉽게 상처를 받게 된다. 그리고 반복되는 상처로 인해 부부간의 용서도 더 어려워진다.

반면에 서로간의 순종과 세워줌을 강조하는 성경적 결혼관은 부부갈등 속에서 용서의 동기를 자기심리학이 강조하는 정서적인 측면이 아닌 가치관의 측면에서 강화할 수 있다. 결혼이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결혼과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 III. 닫는 글

부부관계의 갈등을 용서로 해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부부의 갈등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경우 상당기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관계의 패턴과 원가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러나 부부 상호간의 용서가 다른 어떤 개입방법보다 부부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은 기독교상담 전문가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이 글은 용서의 과정에서 핵심요인으로 여겨지는 공감을 자기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공감적 관계에서 자기의 내면에 일어나는 심리현상을 자기대상의 필요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부부갈등은 상호적이며, 갈등의 근저에는 자기대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자기심리학은 배우자와의 갈등의 핵심을 보게 하고, 이를 통해 공허의 마음을 일으켜 용서의 동기를 촉진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유익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구들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결혼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글은 신앙 안의 부부는 성경적 용서관점과 결혼관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기심리학이 주는 유익은 앞서 언급했듯이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간 내면의 심리적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것이다. 기독교상담은 사람의 문제를 영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심리적 역동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심리학의 이러한 유익을 내면의 심리현상을 분석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질적 연구의 방법 중에 사례연구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결혼 갈등 사례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현상들을 기술한 후 자기심리학의 개념들과 성경적 결혼의 개념들을 사용하여 분석한다면 부부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기독교 상담적 접근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 준.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결혼/부부 상담의 용서 문제”.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0권(2008): 146-167.
- 안경승. “결혼에서의 용서”.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0권(2008): 37-66.
- 홍이화.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I』.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 Augsburger, David W. *Helping People Forgiv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Doff, Elliot N. “The Element of Forgiveness: A Jewish Approach.” In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 Theological Perspectives*. Ed. Everett Worthington, Jr.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1998, 29-58.
- Enright, Robert. *Forgiveness Is a Choice: A Step-By-Step Process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채규만 역. 『용서치유』. 서울: 학지사, 2004.
- Enright, Robert. *The Forgiving Life*. 김광수 · 박종효 · 오영희 역. 『용서하는 삶』.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4.
- Enright, Robert D. & Catherine T. Coyle. “Researching the Process Model of Forgiveness within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 Theological Perspectives*. Ed. Everett Worthington, Jr.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1998, 139-161.
- Hargrave, Terry D. *Families and Forgiveness: Healing Wounds In the Intergenerational Family*. 문미선 역. 『가족치료와 용서: 세대와 가족 간에 얽힌 상처의 치유』. 하나의학사, 2004.
- Hoekema, Anthony. *Created In the Image of God*.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Jones, Xenia Rochelle, “Mental Health: Does Therapy Help?.” *Consumer Reports: 1995* (November, 1995): 734-740.
- Kohut, Heinz. “Thoughts on Narcissism and Narcissitic Rage.” *Psychoanalytic*

- Study of the Child* 27 (1972): 360–400.
- Kohut, Heinz, *The Restoration of the Self*. Madison, NJ.: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7.
- Kohut, Heinz.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Leone, Carla M. “Toward a More Optimal Selfobject Milieu: Family Psychotherapy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Psychology.”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9, no. 3(2001): 269–289.
- Leone, Carla M. “Couple Therapy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Psychology and Intersubjectivity Theory.” *Psychoanalytic Psychology* 25, no. 1(2008): 79–98.
- Minuchin, Salvador.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Patton, John. *Is Human Forgiveness Possible?: A Pastoral Care Perspectiv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5.
- Schlauch, Chris R. “Empathy as the Essence of Pastoral Psychotherapy.” *Journal of Pastoral Care* 44 (1990): 3–17.
- Smith, Winston. *Marriage Matters*.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10.
- Shults, F. Leron & Steven J. Sandage. *The Faces of Forgiveness: Searching for Wholeness and Salvati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3.
- Worthington, Everett L.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 Theological Perspectives*.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1998.
- Worthington, Everett L. *Hope-Focused Marriage Counseling: A Guide to Brief Therap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5.
- Worthington, Everett L. *Forgiving and Reconciling*. 윤종석 역. 『용서와 화해: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이어 주는 9계단』. 서울: IVP, 2006.
- Yarhouse, Mark A. & James N. Sells. *Family Therapies: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8.

【 Abstract 】

## Marital Conflicts and Forgiveness: Self Psychological and Christian Counseling Perspective

**Jun Kim**

Ch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athy as the key element of forgiveness process in relation to couple conflicts in the light of self psychology and Christian counseling.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how self psychology explains the meaning of empathy by using its key concepts such as selfobject relationship and selfobject needs, and then, assesses them in the light of Christian counseling. To achieve this purpose, it first explains the necessity of forgiveness and importance of empathy in the process of resolving marital conflicts. Then, it explains negative emotions like rage and shame couples experience in the course of conflicts by examining the key concepts such as selfobject needs and narcissistic injury.

The study argues that self psychology illustrates the necessity of mutual forgiveness between couples through experiencing compassion and empathy each other. However, it warns that overemphasis on selfobject needs might be contradictory to Christian messages found in the Bible, and thus suggests a biblical view on Christian marriage in order for the couples to have a balanced view on their conflicts and related emotions.

Finally, the study suggest a qualitative case study or phenomenological studies on couple conflicts, which may reflect self psychological explanation on the nature of couples' conflicts.

**Key words:** couple conflicts, forgiveness, self psychology, empathy, selfobject.